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 음악통합교육

정길영*

요약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제도에 성인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음악교육정책을 도입할 필요성 한 음악교육의 다문화적 통합이 지니는 의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외국 이주노동자와 여성 결혼이민자들이 우리 사회와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음악교육과 관련된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적으로 통합된 음악교육은 다문화인으로 하여금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며, 아울러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 민요를 종교 음악, 예술음악, 록, 재즈 등 우리 시대의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모두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국가 등 외국의 문화를, 또 다문화인은 우리 문화를 경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를 중심으로 구성된 음악교육정책은 동아시아 국가 등의 문화와 음악으로 관심의 폭을 증대시켜야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합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평생교육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습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 음악의 통합교육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제적 적용이 필요하다.

주요어 학습사회, 평생교육, 성인교육, 다문화인, 다문화 음악교육, 음악통합교육

1. 서론

우리 사회는 이미 지식정보화사회, 지식기반사회 그리고 평생학습사회, 다문화사회이다. 그 이전 산업사회에서 중요시하던 노동이나 자본보다 지식과 정보가 더 중요한 생산의 요소이자 가치가 되고 있어, 인적 자원을 개발

* 대구대 시간강사, 교육학, kyoung0217@hanmail.net

하는 것은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이며 과제가 되었다. 또한 급속하게 발달한 인터넷에 의하여 지구촌은 축소되고 모든 분야에서 개방되고 있으며 아울러 치열한 경쟁의 상황을 접하게 되었다.

또 사회적 측면에서는 다문화사회로의 변화를 촉진하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이해하는 사회로서, 인종적인 고정관념과 편견 등의 선입관을 벗어나는 관점에서 시작된다. 우리나라는 특히 아주 빠른 속도로 다문화사회로 변화해 가고 있으며, 이에 따른 다문화교육은 정의와 평화가 공존하는 우리의 미래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조건이 된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의 평생교육의 현장은 다문화인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서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교육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시점에 와 있다.

인간성 상실의 시대에 인간교육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음악예술이 개개인이 지니고 있는 특성, 즉 서로의 다름을 허용하고 인정하여 이를 통합하는 다문화 음악교육의 통합이 시행될 때, 우리 사회가 진정한 다문화적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 정책에 학습자가 스스로 느끼고 다양한 음악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결과가 아닌 과정중심의 수업을 시행하는 음악통합교육을 도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이다.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문화교육은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시장을 주도하는 열쇠로서(최항석, 2010: 9),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제안이나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목적은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 차원의 평생교육제도에 성인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다문화 음악교육정책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하여 탐색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음악교육의 다문화적 통합이 지니는 의의를 재고찰하고, 그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이다. 즉 평생교육이념과 다문화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음악교육의 다문화적 통합을 추구하고, 다문화 음악의 통합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내용과 적용에 대하여 탐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은 평생학습사회의 출현과 그에 따르는 다양한 다문화 음악교육이론과 학습내용 등에 대하여 이미 연구되어 있는 다수의 문헌을 중심으로 하여, 다문화음악 통합교육정책의 변화와 필요성, 그리고 그 의의와 적용 등에 대하여 모색하는 방법에 의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다문화적 교육정책과 음악교육에 대하여 평생학습사회의 성인교육과 열린학습의 특성을 중심으로 논의한 후에, 평생학습사회에 있어서의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의 필요성과 의의, 이를 위한 다문화 감수성의 증진과 실제적 적용에 대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2. 다문화 교육정책과 음악교육

1) 평생학습사회의 음악교육

(1) 학습사회와 평생교육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간자본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한 사회적 요구는 자연스럽게 ‘학습사회’에 대한 인식을 갖게 하였다. 우리나라는 ‘교육’과 ‘학교교육’을 동일하고, ‘교육’을 성공을 위한 도구로 인식하여 교육의 절대적 가치를 왜곡시켜왔으며, 그 결과로 사회폭력과 사회범죄, 사회부적응 등의 부정적인 문제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학교교육과 사회교육이 균형을 이루어서 발전하기 위한 관심과 노력이 대두되었으며, 그 결과로 평생학습사회(lifelong learning society)를 지향하게 되었다.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는 교육과 학교교육이 지닌 병리현상을 해결하고 국민 모두가 일생의 삶 속에서 학문과 배움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국민 복지를 실현하는 사회이다. 향존주의 교육철학자인 허친스(R. M. Hutchins)가 학습사회(learning society)를 주장하면서 사회변화와 평생학습교

육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 허친스는 학습사회를 “모든 사람이 언제 어느 때라도 정시제의 성인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학습달성 및 인간적인 것을 목표로 하여 그 제도가 그 목표를 실현하는 것과 같은 가치의 전환에 성공한 사회”(Hutchins, 1968: 134-135)로 규정하였다.

즉 허친스의 학습사회는 모든 남녀에게 시간제 교육이 제공되고 모든 기관이 그 목표를 지향하는 사회이다. 그는 도시의 총체적인 역량을 동원하여 시민의 학습활동과 도시의 활성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이상적인 학습사회의 도시를 학습도시라고 하였다. 허친스의 학습사회에 대한 주장과 함께 평생교육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한 지방자치단체들은 학습도시로의 전환을 추구하게 되었다. 학습도시는 그 도시 전체가 소속된 주민의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이를 계속적으로 지향하며 삶의 질을 높여 복지도시로의 이상을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에 가치를 두는 사회이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위한 국가적인 대안으로서 모든 국민이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교육을 선택하여 받을 수 있는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평생교육의 이념이다. 이와 같이 모든 국민이 인간답게 살아가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도입된 평생교육의 이념은 배움과 학습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데서 시작되었다. 평생교육에서 주장하는 학습사회는 인간형성과 자아실현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며, 인간존엄성을 회복하기 위한 이상적인 가치체계로서 교육의 대상을 주로 성인에 둔다.

앞의 내용을 요약하면,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정책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움의 가치를 중시하고, 배움을 통하여 얻는 행복을 가치 있게 보는 학습사회를 실현하는 통로이다. 국가는 성인 누구나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학습하고자 하는 내용과 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고 이와 관련된 적합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호모 에루디티오로서의 인간

앞에서 소개한 바와 같이, 학습사회는 교육의 대상을 주로 성인으로 하여 일생동안 학습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이다. 일생동안 학습하는 것을 좋아하

는 인간을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로 해석하고 있다.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는 인간을 ‘학습하는 동물’로 설명하는 것이다. 인간을 학습하는 동물로 해석하고 인간의 배움에 대하여 연구해 온 역사는 인류의 시작과 함께 한다.

배우는 동물인 인간에 대한 지적인 전통의 시작을 알리는 것으로 안드라고지(Andragogy)가 있는데, 이 안드라고지(Andragogy)는 그리스시대와 로마시대를 거쳐 체계적으로 발전해 왔다. 로마인들은 안드라고지 대신에 마데틱스(Mathetics)라는 말을 즐겨 썼는데, 이는 수학을 일컫는 마데매틱스(Mathmatics)와 혼돈스럽게 교차하였다. 마데틱스는 고대 그리스에 있어서 학습, 그 중에서도 성인들의 학습행위(한준상, 2012: 59)를 의미한다. 또 1970년대 이후 미국의 노울즈는 페다고지에 대해 대립된 개념으로 안드라고지를 성인교육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라틴어 에루디티오는 배우고 가르치는 행위를 모두 의미한다. 로마인들은 에루디티오를 지식(knowledge)이나 지혜(wisdom)를 익히는 사람, 알차게 배우는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하였다. 즉 지혜로워지기를 원해서 개인 스스로 끊임없이 배우고 익히기를 즐기는 사람들의 학습행위를 지적하거나 칭송하는 개념이다. 또 스스로 익히기를 좋아하고 서로 배우며 서로 가르치고 서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의 배움이나 토론 공동체로서의 참여와 향연을 지칭하는 데도 에루디티오란 말을 사용하였는데(한준상, 2012: 59), 여기서 마데텍스와 마찬가지로 에루디티오 역시 성인의 학습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의 학습에 대하여 논하고자 하면, 먼저 평생학습사회 관점에서의 인간에 대한 해석은 학교중심교육에서의 인간관과 다르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게 된다. 평생학습사회에서는 인간을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즉 인간은 배움에 대한 욕구를 본능적으로 지닌 존재로 보는 데서 비롯된다. 다시 말하면,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는 학습의지(the will to learn)와 학이시습(學而時習)을 실현하려고 배움을 의지하는 인간을 의미한다. 이런 관점에서, 인간이 학습을 통하여 삶의 질을 가치 있게 생각함으로 행복을 추

구한다는 점에서 다른 동물과 비교할 때 우월한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은 플라톤 이래 지금까지 많이 논의해 왔으나, 인간의 행복은 기본적으로 사려 깊은 성찰을 충족시키는 것이다. 인간의 지고한 목적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고, 행복이 인간 스스로의 사려 깊은 성찰적 충족임을 고려할 때 한준상은 인간이 추구하는 행복과 호모 에루디티오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한준상, 2012: 63-65).

첫째, 인간은 자신 스스로의 힘에 의하여 행복이 가능하다. 자신 스스로 행복을 얻기 위하여 뭔가를 하려는 의지와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힘이 필요하다.

둘째, 행복은 사려 깊음에 의해 가능하다. 즉 생각하기의 반추와 반성을 여과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 호모 에루디티오는 지혜로워지기를 원하는 존재로, 생각의 여과기를 통과하기를 즐긴다. 즉 의식 있는 생각 속에서 더 사려 깊어지며, 인간의 지혜는 또 다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성장시킨다.

셋째, 행복은 성찰적 과정을 수반해야 한다. 이는 인간 스스로 자신의 행복추구에 대해 고려해 보는 능력을 소유함을 의미한다.

앞의 내용을 정리하면, 행복을 추구하는 인간인 호모 에루디티오는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배우고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지혜로워지는 행복을 향유하는 존재이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는 노력의 결과로 사회가 평생학습사회로의 변화를 시행하게 되었다. 또 평생학습사회에서 배움은 교육의 결과로 형성된 어떤 것에 중요성을 두지 않고, 배움의 씨앗을 가지고 출생한 인간이 생존을 위해서, 혹은 자신의 삶을 개조하거나 긍정적인 미래를 형성하기 위하여 배울 수밖에 없다고 본다. 최항석(2010)도 “배우는 동물인 호모 에루디티오는 덜 배운 것을 보완하며 더 배워야 할 것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그들의 학습본능을 개조하며 업그레이드시켜 현실화시켜 주는 학습을 의미한다(최항석, 2010: 13)”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성인교육을 전제로 하는 학습사회에서 호모 에루디티오에게는 기존의 학습과는 다른 형태의 학습망이 필요하게 된다. 이는 인간이 지니는 문화의 욕망과, 학습에 대한 욕망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습망

법과 교육정책을 개선하게 되었음을 말한다. 그 결과 학습자에게 구체적인 학습기술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으며, 학습자 스스로 배워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기에 앞서, 이런 배움의 활동은 일상생활 경험학습의 실용성을 높이는 일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한준상, 2012: 25)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와 같이 성인학습자들은 페다고지(pedagogy) 사회를 넘어서는 학습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학습에 참여하는 단계로부터 성인학습자는 자신의 문화적 욕망이 무엇이며, 타인과의 열린 관계가 어떤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하게 된다. 즉 학습자 스스로 학습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이론적, 실제적으로 참여하면서 자기 존재의 교육적 의의를 새롭게 확인하게 된다. 성인학습에서 능동적인 학습체로서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간성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학습방법을 요구하게 되어, 소위 자기 주도적 학습, 문제해결학습, 네트워킹학습, 개조주의학습 등의 교육방법이 평생교육현장에 나타나게 된 것이다.

① 열린 학습사회의 성인학습

평생교육에 대한 요구는 호모 에루디티오, 즉 인간본능에서 오는 필연적인 사회변화의 결과임을 앞서 논의하였다. 성인인구가 증가하고 급변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학습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출현한 평생교육은, 결국 교육의 내용과 교육의 장에 있어서 그 경계선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즉 학교를 중심으로 하는 정규교육기관에서 실시되는 정규교육(formal education), 형식교육기관 밖에서 실시되는 도서관, 교회, 신문 텔레비전 등 일상생활 속에서의 경험을 통한 무형식교육(informal education), 형식교육과 무형식교육의 중간에 위치하는 교육으로 문화센터나 지역사회교육기관에서 시행되는 비형식교육(nonformal education) 등의 구분도 결과적으로 모호해지게 되었다.

또 1920년대 이후 성인교육이 증가하면서 종래의 아동중심의 페다고지 모델의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성인교육을 시행함에 있어서 페다고지식 수업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학습사회의

핵심이 학습을 누가, 무엇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관심이 모아지자 성인교육방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새로운 학습방법을 통한 인간의 교육적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사회가 누구에게든지 배움의 장이 되며 배움의 방법이 되는 학습교실이 되어야 한다. 즉 이 사회가 학습인을 위한 배움과 가르침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학습사회를 실현해야 하는데 한준상은 이를 ‘열린 학습사회’라고 하였다.

열린 학습사회, 혹은 열린 성인학습사회는 수동적 학습자가 전제되는 폐다고지 교육을 넘어서서 학습자가 스스로 가르치고 배우는 능동적 학습패러다임을 견지하는 사회를 말한다. 배움을 위한 학습활동에 있어서 배움의 방법과 장소가 같은 의미로 쓰이게 되는, 혹은 학습활동의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학습의 장이 되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는 평생교육법, 학점은행제도 등을 도입하여 열린 학습의 장을 마련하였다. 열린 학습사회는 생성적인 열린학습의 주체를 목표로 한다. 학습자 개인에게 학습장소가 곧 바로 학습의 방법이 되고, 배움의 방법이 곧 바로 배움의 장소가 되기 때문이다(한준상, 2012: 226-227).

그러므로 열린 학습사회는 학습자 스스로 능동적이며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며 사회변화를 능동적으로 만들어가는 자기개조의 성인학습자상을 요구한다. 학습사회가 건설될 때, 개인은 그 사회에 자기의 전문성을 교육적으로 환원하게 되며 모든 사회 구성원은 자기의 생애를 평생학습 기간으로 삼아 자신의 능력에 합당한 교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상징적인 학습의 주체가 되는 것이다.

또 페다고지(pedagogy)에 대하여 대립된 개념으로 안드라고지(andragogy) 모형을 제시한 노울즈도, 안드라고지를 ‘성인학습을 도와주는 기술(art)로서의 과학’으로 정의하였다. 안드라고지는 성인 학생의 학습 및 교육방법론을 일컫는 말로, 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적 교수법을 지칭하는 페다고지와 대비하기 위해 고안한 용어이다. 즉 안드라고지로서의 성인교육은 인간의 고통을 극복해주는 호모 에루디티오의 본성을 인정한 자기 성찰과 자기 성장의 순화과정이 됨(한준상, 2012: 72)을 의미한다.

안드라고지는 미주지역에서는 성인들의 학습을 조성하려는 기술과 과학으로 규정하기도 하며, 유럽지역에서는 ‘성인교육의 정책, 제도 및 그 실시과정 전체를 연구하는 학문’(윤여각, 2009: 27)을 의미하기도 한다. 안드라고지의 학습방법은 학습자 주도의 모델을 설정하여 학습자의 경험이 학습에 유용한 자원이 된다. 학습자의 주체성이 보장된 평생교육의 안드라고지는 학습자의 능동성과 주도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새로운 학습방법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

학습자 스스로 학습참여 여부에서부터 목표설정 및 교육 프로그램의 선정과 교육 평가에 이르기까지 교육의 전 과정을 자발적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결정하여 행하는 자기 주도적 학습방법은 사회교육과 성인학습의 특징적 방법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북미지역의 성인교육론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자기 주도적 학습이론은 인본주의 관점에서 개별 학습자의 학습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원조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처럼 실존주의와 인본주의 심리학파 철학적 바탕에 기초하고 있는(한준상, 2012: 131) 성인교육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페다고지 교육과 구별된다.

먼저 성인학습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과정을 주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존재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학습의 결과보다는 학습의 과정을 중시하고 주체로서의 학습자를 인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의 변화는 기존의 학교교육과는 다른 방식의 개념과 연구영역, 연구방식, 실천 등을 요구하게 된다. 즉 학교 안으로만 향하던 교육에 대한 관심이 학습자의 생활로 확장되고, 학습은 교실 안에서 학습자가 수동적으로 교육내용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장면에서 학습자가 능동적으로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학습자 스스로의 능력으로 창의성과 상상력을 높이도록 모형을 제시하고 촉진하는 ‘교사’의 역할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간의 기본권의 하나인 학습권을 보장하는 사회적 장치이다. 앞에서 논의했던 라틴어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즉 학습하고자 하는 본성에서 시작된 인간의 기본권인 학습권(the right of learning)은, 1985

년 파리에서 제4차 유네스코 국제성인교육대회의 보고서에서 연유된다. 이 선언에서 인간의 학습권은 읽고 쓸 권리, 탐구하고 분석할 권리, 상상하고 창작할 권리, 자신의 세계를 읽고 역사를 쓸 권리, 교육자원에 접근할 권리, 개인 및 집단적 기능을 발전시킬 권리(윤여각, 2009: 30-31) 등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정리해 보면, 성인교육에서의 학습권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인성적, 지적, 혹은 기능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유롭게 탐구하고 기초교육에 참여할 권리로서 ‘학습할 권리’와 ‘교육에 참여할 권리’가 포함된다. 인간은 누구나 학습하는 존재로서, 출생과 함께 학습이 시작되고 생을 마칠 때까지 학습하는 학습동물(homo student)이며, 학습권을 가진 학습동물로서의 인간은 생애 중 긴 기간 동안 성인학생이 되어 모든 교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

② 다문화사회의 열린 학습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일생을 통하여 모든 교육 활동과 학습 활동에 참여하는 학습동물(homo student)로서의 인간이, 다문화사회를 접하면서 다문화적 통합에 동참하는 것은 성인의 학습권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현실이 되었다. 다문화사회(multicultural society)는 다양성(variety)을 배경으로 하여 형성된 사회로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 이루어진 사회이다. 즉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사회는 사회사상과 가치관, 행동양식 등의 차이에 따른 다양한 관점과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여 이를 통합하는 사회이다. 다문화주의는 유럽 중심의 단일문화주의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이념으로서, 어느 특정 집단의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유형의 문화가 동등하게 존중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지닌다. 교육에서의 다문화주의는 인구 구성상 다문화적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던 미국에서 먼저 등장하였다.

다문화주의는 다인종 국가들 안에서 구체적으로 형성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유럽의 이민자들로 출발한 미국은 20세기 초에 이민의 절정 시기에 이

르게 되었다. 미국사회는 이민자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어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의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정책과 제도는 물론이고 사회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사회분위기 속에서 다문화사회에 대한 관심과 다문화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다문화사회는 한 국가 내에 상호 간에 인종, 민족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의 이익과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책임을 다하는 사회로 발전할 때 이상적인 다문화사회가 정착된다(김경식 외, 2012: 56).

이러한 점에서 급변하는 한국적인 상황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다문화사회에 대한 준비 혹은 적응이라는 과제를 슬기롭게 대처하고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다문화사회를 이끌어가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세계화의 흐름과 함께 다문화교육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게 되었으며, 음악교육에서도 다문화주의는 큰 의미를 갖게 되었다. 그 예로서 음악교육에 있어 1980년 이후에 국악교육에 대한 비중이 높아지면서 서양 음악을 위주로 하던 단일문화주의에서 벗어나 여러 지역의 음악을 내용으로 하는 다문화주의적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외국에서 들어온 노동자 수의 증가하면서 국내에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의 수가 약 120만 명을 넘어설 정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으며, 여기에 북한을 이탈해 남한으로 온 탈북자의 수도 2010년 말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2만 명을 넘어서고 있다(차윤경 외: 12). 이처럼 다문화인의 수가 증가하게 된 우리나라는 다문화가정의 성인과 그 자녀의 교육 및 그들의 사회적 통합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었다.

즉 국가 간의 경계를 초월한 다양하고 이질적인 문화권과의 접촉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우리 사회 안에서의 다인종·다문화가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2005년 5월에 교육인적자원부는 ‘다문화가정자녀 교육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문화민주적 통합(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로, 우리나라를 다문화주의 이념을 의미하는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하는 것을 정책 목표로 제시하였

다.

이러한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끼는 곳은 교육 현장이다. 현재 다문화 가정의 취학자녀 중 약 85%가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2012년에 농촌지역의 초등학교 1학년생 10명 중 4명 정도가 다문화자녀이고, 초등학교 학부모회의 10명 중 4명이 결혼이민자가 차지한다(이성미, 2012: ii). 그러므로 다문화 성인에 대한 교육은 물론이고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의 다문화교육이 더욱 요구되고 있으며, 학생과 교사 또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하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이미 모두가 다문화인이 된 것이며, 넓은 의미의 교육은 모두 다문화교육이다. 그러나 다문화가정의 자녀와 성인이 학교와 사회에서 따돌림의 대상이 되는 경우도 있으며 이로 인한 사회문제를 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성인과 다문화 가정의 자녀가 학업성취의 저하와 자아정체성의 결여, 혹은 또래로부터의 따돌림 등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사회 통합을 위한 다문화교육 정책의 중요성을 인정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완화시키거나 해결하고 이런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따른 과제에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다문화 성인교육에 대한 새로운 관심의 폭을 넓히고 이와 함께 평생교육에 다문화 음악교육적인 요소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정규교육기관에서 다문화자녀에 대한 교육에 관심을 두고 그 정책을 시행한다면 당연히 평생교육의 이념에도 다문화주의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요약하면, 우리 국민과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학습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체제에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등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또 다문화인은 우리 문화를 경험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이어서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은 동아시아 국가 등의 문화와 음악에 대하여 관심의 폭을 증대시켜야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합한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2) 다문화 교육정책과 음악교육

이 장에서는 우리 국민과 다문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에서 음악교육이 담당하는 다문화적 관점의 중요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정부차원에서의 다문화교육정책은 부처별로 집중 정책을 달리하고 있으나, 결혼이민자와 그 자녀를 교육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삼고 있는 부처는 복지부, 여성부와 농림 수산식품부 그리고 노동부와 문화부, 다문화가정 및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과학기술부 등이다. 다문화인의 한국 적응과 사회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다문화교육은 국비와 지방비를 재원으로 하여 한국어 교육, 가족 교육, 정보제공, 상담 및 역량강화 서비스 제공 등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다(권정숙, 2012: 58-59).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여러 다양한 다문화 교육정책 중에 음악교육에 대한 관심의 폭을 넓혀서 다문화적 음악통합교육을 시행해야 한다. 음악, 미술, 문학, 체육 등의 예술 활동은 인간정신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정신적으로 통합적인 활동을 통한 인간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때에 음악예술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정화시켜 주고 영적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감수성을 증진시켜서, 우리에게 특히 요구되는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감정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 음악활동이 다문화교육에 적용될 때,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뱅크스(James A Banks)는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2008: 2-4」에서, 다문화교육의 목적은 첫째, 다른 문화를 통하여 자신의 문화를 바라보게 하여 자기이해(self-understanding)를 증진시키는 것이며, 둘째, 문화적이며 언어적 대안(cultural and ethnic alternatives)을 가르치는 것이고, 셋째, 모든 학생이 자문화, 주류문화와 타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사회에서 요구되는 지식과 기능, 태도를 습득하도록 하는 것과, 넷째, 소수 인종 민족 집단이 그들의 인종적·신체적·문화적 특성(unique racial, physical, and cultural characteristics) 때문에 겪는 고통과 차별을 감소시키는 것, 다섯

째,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읽기, 쓰기, 그리고 수리적 능력을 습득하도록 돕는 것이라 하였다.

위의 बैं크스(James A Banks, 2008)가 주장하는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요약해 보면, 다른 문화와 자신의 문화를 통합하고, 타문화를 습득하여 그 사회에 적응하는 다문화인으로 형성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여기서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를 통합하는 데 있어서 음악교육의 역할을 주장하게 된다. 다문화사회에서 사회양극화 및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평생교육정책에 다문화 음악적 요소를 포함시키는 것은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다. 즉 교육정책에 있어서 다문화인에 대한 차별과 불평등을 재생산하는 제도적인 장애 요인을 제거하고,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사회 통합의 차원에서 평생학습사회를 지향하는 교육정책에 다문화 음악적인 요소가 포함되는 것이 중요하다.

오은순(2011: 20-21)은 “음악과 미술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을 전인적 발달은 물론이고 미래인의 역량으로 필요한 고등사고력에 둔다”고 하였다. 오은순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학습자의 감수성증진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음악교육은, 개인의 전인적 발달과 개인의 고등사고력을 함양시키는 데 공헌한다. 즉 평생교육체제에서의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음악교육 프로그램은, 성인학습자의 음악적 감수성을 자극하여 학습자 스스로 타문화를 느끼고, 다문화적 음악활동에 함께 동참하여 타문화와 다문화인을 이해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적 음악교육으로 변해가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다문화교육의 목적에 부응하는 음악통합교육의 접근 방법은 단편적인 음악소재나 음악활동을 넘어서서 보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방법과 내용이어야 한다. 즉 항상 변화하고 발전하는 문화에 대하여 고정화되고 정형화된 사고나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문화에 대하여 수용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문화 통합교육의 중요성에 대하여 권정숙(2012: 54)은 다음과 같은 다섯 개의 의의를 제시하였다. 다문화교육은 첫째, 문화적으로 다른 이들을 주

류문화 및 사회에 통합시키기 위한 교육, 둘째, 문화 간에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모든 학생에게 문화적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안내하는 문화 차이에 대한 교육, 셋째, 우리 문화를 보호하고 소수 종족 집단의 권한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문화적 다원주의를 위한 교육내용, 넷째, 모든 학생들에게 두 개의 다른 문화 속에서 성공적인 생활을 하도록 지도하는 이중 문화교육, 다섯째, 다양한 문화적 맥락 속에서 성공적인 활동을 하도록 학생을 미리 준비시키고 안내하는 경험의 확장을 유도하는 다문화교육 등이다.

다시 말하면,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질서를 추구하기 위하여 열린 학습사회는 다문화인에 대한 통합적인 시각에서 우리 문화와 소수 민족의 문화를 융합하거나 통합하는 인식이 중요하다. 아울러 의사소통의 능력을 배양하고 타문화와 소수 문화에 대한 일상에서의 차별과 편견을 극복하기 위한 다문화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진정한 다문화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주 여성들이 스스로를 존중하는 능력과 적응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여성들이 직접 참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평생학습사회의 학습자로서 적응하도록 안내하는 교육의 장을 모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즉 학습사회에서 말하는 다문화교육은 다른 문화를 경험하고 그것들 중에 우리에게 필요하거나 부족한 것을 익히고 우리 나름대로 즐기며, 그 안에서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만들어내는 힘이며, 자기 문화와 다른 문화를 가진 사람과 의사소통을 통한 나눔을 하는 힘을 의미한다.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성향을 발견하여 연구하고 우리가 받아들임으로써 우리 사회를 좀 더 다양화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기대로 간주함이 새로운 다문화교육이 추구해야 하는 목적이자 목표이다(최항석, 2010: 26-27).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교육자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평생학습관이나 평생학습센터, 혹은 각종 학교, 구청이나 정부기관의 교육시설 등을 자국민과 다문화자녀들이 함께 어울려 사용하도록 통합적인 정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교육자원을 이용하고 확충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가 정책

을 마련해야 한다.

또 그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직업적 기술을 익히기 위해서는 노동부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가 정책 마련에 관심을 두어야 한다. 그들의 권리를 지켜주고 신뢰를 위한 사회적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외교통상부와 정보통신부가, 다문화자녀의 교육과 적응을 위하여 문화관광부와 여성부가 정책개발과 열린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에 통합적으로 논의하고 모색해야 한다. 교육방법과 프로그램개발에는 모두가 윈-윈(Win-Win)작전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예를 들어 그들의 언어를 우리가 익히고 그들이 우리의 언어를 배우는 공간과 관계 자원을 마련하는 것이다.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인간에게는 배움의 본능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애착과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다문화교육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최항석, 2010: 29-30). 다문화가정의 성인들이 우리 사회에 시간적으로 빠르게 동화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인적 자원을 지원하며, 이를 위한 교육 공간이나 교육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의 성인 역시 일생을 통하여 배움의 가치를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호모 에루디티오’로서의 개인이기 때문이며, 평생학습사회에서 다문화교육은 미래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원이기 때문이다. 이미 우리가 보고 있는 바와 같이 세계 각국 곳곳에서 다문화교육을 받은 다문화인들은 자신의 삶을 개조하고 주도하고 개척해 나가고 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이미 시작된 미래(최항석, 2010: 30)’이다.

3. 학습사회의 다문화 음악통합교육

1)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의 의의

(1) 음악교육과정의 통합

교육과정의 통합은 시대적인 하나의 흐름으로서 학문의 통합 혹은 융합으로 변화해가는 시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우리의 삶 자체가 교육의 과정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세계를 대상으로 끊임없이 스스로 배우고 익혀 삶의 지혜를 넓혀가기 때문에 이미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있는 것이다. 통합교육에서 말하는 통합은 '수직적 통합', '수평적 통합' 그리고 '교육과정통합'으로 요약된다.

먼저 수직적 통합은 일생에 걸친 교육적 경험이 인간의 발달에 유기적으로 조정되고 조화되는 차원을 의미한다. 수평적 통합은 특정 시점에서 학교 교육, 가정교육, 사회활동, 대중매체 등 다양한 교육기관의 교육적 영향이 인간에게 통합되는 차원을 의미한다. 반면에 교육과정통합은 학교교육에서의 통합을 의미한다. 그러나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보면, 학교교육과정의 통합은 일생을 걸쳐 진행되는 통시적 수직적 지평의 통합과 한 시점에서의 전체성인 공시적 수평적 지평의 통합이라는 두 차원의 통합을 종합한다. 이런 차원에서 학교에서의 교육과정 혹은 교육내용의 통합은 인간 개인의 일생의 경험에 근거한 통합으로 해석한다(은은숙, 2013: 269-270).

앞의 해석에 따르면, 이 연구에서 말하는 음악교육의 통합에는, 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의 통합, 다른 교과와의 통합, 일반인과 장애인의 통합, 다문화인과 자국민의 통합 등의 수평적 통합과, 학년 및 연령 간의 통합인 수직적인 통합으로 정리하게 된다.

먼저 음악주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의 통합은 음악교육활동과 내용에서의 통합이다. 즉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하기, 음악 감상하기, 음악 듣고 몸 움직이기, 음악 만들기 활동 간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음악은 다른 교

과의 교육과 통합할 수 있는데, 음악은 먼저 언어교육과 통합될 수 있다. 음악교육 활동 중에 노래 부르기는 음악과 언어가 자연스럽게 통합된 과정에서 시행되는 음악교육의 중요한 부분이다. 다문화인에게 있어서 그들 나라의 민요는 그들의 음악적 모국어이므로, 우리 국민이 다문화인과 함께 그들의 전래동요나 민요를 부르거나, 다문화인이 우리의 민요를 부르거나 우리 전통 음악을 배우는 것은 다문화적 통합을 유도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또 음악은 수학, 과학, 생태교육, 미술 표현력 등의 모든 분야와 통합이 가능하며, 운동능력과 신체능력 및 정서지능과 사회성 발달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마송희, 2011: 240-241).

전체적으로 음악교육의 통합은 자신의 민족문화와 음악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탐색하여, 서로 다른 점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다른 문화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수용하는 다문화적 통합, 즉 수평적 통합이며, 아울러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체제의 음악교육은 당연히 연령과 학년의 차이를 통합하는 수직적 통합이 된다.

(2) 음악교육의 통합적 기능

앞의 장에서 교육과정의 통합과 음악교육의 통합에 대한 것이라면, 여기서는 음악교육이 지니는 통합적 의의와 다문화 음악교육의 통합의 중요성과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려고 한다. 이미 알려진 사실이지만 음악은 인류의 공동언어로서, 음악 속에는 그 민족의 생활과 역사, 전통이 배어 있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의 통합은 세계 각국의 음악문화를 다문화적으로 통합하여 인종과 성, 언어, 계층을 이해하고 수용하도록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호모 에루 디티오로서의 인간에게는 예술활동 역시 중요한 생활적 가치를 지닌다. 예술적 표현의 가치는 예술작품을 창작하고 연주하는 예술가에게뿐 아니라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 예술을 평가하는 사람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 예술적 표현의 가치는 예술에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예술의 기능, 예술의 본질, 평가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양한 문화 안에서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서를 자극하여 감수성을 유발하

는 음악교육의 통합은 21세기 음악교육의 핵심적인 흐름이 되고 있다. 평생 교육 프로그램에서 개인적인 능력과 욕구, 흥미가 고려된 음악교육이 이루어질 때 성인 학습자는 자신의 경험과 삶 속에서 얻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하여 적극적인 표현능력이 계발된다. 음악교육은 소리 탐색하기, 노래하기, 악기다루기, 감상하기, 표현하기, 창작하기 등의 과정을 통하여 신체활동, 언어발달, 인지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발달, 창의성 발달을 돕는 기능이 있다. 이러한 신체, 언어, 인지, 사회 정서의 발달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한 영역의 발달은 또 다른 영역의 발달로 통합된다. 그러므로 음악교육은 음악예술의 가치와 의미를 경험하고 학습하는 과정 속에서 전인적인 발달의 영역을 확장시킨다.

이미 연구 발표된 내용이지만, 음악교육이 지니는 전인적이고 인간형성적 의의를 다시 요약하겠다(정길영, 2013: 264-266). 플라톤에서 시작된 서양의 음악교육은 도덕교육과 통합된다. 칸트는 예술과 윤리적 선의 공통점을 인정했으며, 듀이 또한 일상경험을 미적인 경험으로 해석하면서 예술활동이 인간성 발달에 통합적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 듀이와 아이즈너는 교육활동이 예술적인 경험이며, 수업의 질이 예술적인 감각에 의존하며,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창조적인 활동이며, 수업의 과정에서 수업 목표가 형성된다는 의미에서 예술활동이 된다고 한다. 서양에서 교육활동이 인간성의 감동과 변화를 유도하는 예술작품을 통한 예술활동의 중요성을 주장하여 왔는데, 이는 음악교과목이 원만한 인간성의 발달과 메마른 인간성의 회복과 치료에 긍정적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동양의 예악사상 역시 인간성의 본질인 인(仁)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예와 악을 언급하였다. 즉 우주의 조화를 상징하는 예악을 통하여 인간이 완성되며, 이상적인 사회가 형성된다고 보았으며, 예악의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중용을 얻도록 하는 것으로, 예악에서의 미는 실천적이고 통합적인 예술 활동과 놀이 속에서 체득되는 미를 의미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교육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인간의 정서를 자극하여 감수성을 유발시키는 교육적 기능을 한다. 인간의 자율적인 참여

활동을 유발하는 음악 활동은 전인교육의 통로가 된다. 개인의 경험과 흥미가 유발되어 스스로 예술 활동에 참여하는 능동적인 학습 경험은 사회 문화적인 차이를 초월하게 한다. 또 최근에 관심으로 떠오르는 음악 치료적 기능도 음악을 통한 사회통합의 의의를 중시하는 것이다.

음악활동이 예술치료에 적용됨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정신이자 문제해결을 위한 헌신적인 생각이 깃든 인간존중사상이며, 해결가능성에 대한 신뢰, 즉 새로운 방법으로서의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신뢰와 사회에 대한 봉사와 희생정신이다. 또 음악활동이 지니는 도덕적인 사고에는 정신의 병리를 치료한다는 사고, 건강한 신체는 건전한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사고, 종교음악은 정신과 육체적인 행복을 이룩하기 위하여 유용하다는 등의 철학적인 배경이 자리하고 있다. 아울러 음악감상이나 음악활동은 신경생리학적 기능과 의사소통의 기능, 감정표현의 기능과 상징적 표현의 기능, 오락의 기능과 상상력을 유도하는 기능 등의 치료적 기능이 있다.

요약하면, 음악은 인류의 공통 언어로서, 음악교육은 사회를 통합하고 인간 개개인의 차이를 통합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사회폭력을 감소시키는 것, 사회적 도덕성을 신장시키는 것, 원만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를 통합하는 음악교육이 지니는 사회통합적인 의의가 된다. 즉 음악교육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며, 사회의 이질적인 면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통합하는 통로가 된다.

2) 학습사회를 위한 다문화 음악통합교육

(1) 다문화 음악교육의 의의

앞의 음악교육의 통합적 기능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다문화 음악교육의 통합 역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국민이나 다문화인 모두에게 있어서 소홀할 수 없는 공통점은 음악, 미술, 문학, 체육 등의 예술활동이 인간정신과 직접적인 관계에서 통합적인 활동을 통해 인간정서와 감수성을 자극한다는 사실이다. 이때에 음악예술은 우리의 내적인

삶을 정화시켜 주고 영적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감수성을 발달시켜서 오늘날 현대인에게 특히 요구되는 인간과 자연을 사랑하는 감정을 더욱 아름답게 승화시키는 역할을 담당한다.

민경훈(2009: 108)의 연구에 의하면, “다문화 음악교육은 자국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면서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으로 세계의 음악을 가르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한다. 이는 자신의 문화를 존중하면서 상호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평화와 화합이라는 새로운 문화 패러다임을 형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다문화사회에 대비하는 성인음악교육은, 다문화 음악을 상호 교류하여 경험함으로써 감수성을 증진시키는 음악교육에서 그 방안을 얻게 된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전통적 민요를 중심으로 하여 종교음악, 예술음악, 록, 재즈 등 우리 시대의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모두를 통합하는 것을 음악교육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현행 우리나라 제7차 개정 음악과 교육과정은 ‘이해’와 ‘활동’으로 구성되는데, 이해가 리듬, 가락, 화성, 형식 등의 음악적 개념이라면, 활동은 가창, 기악, 창작, 감상활동 등을 의미한다. 특히 다문화자녀들이 초등학교 음악수업에서 자신의 어머니 나라의 노래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는 것에 대해서 49%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므로(홍승연, 2011: 72), 이에 따른 선택적인 수업과 실제적인 음악활동의 지도가 필요하며, 특히 다문화 성인에게 적당한 음악교수 자료에 대한 연구와 분석이 필요하다.

권덕원(2000: 54-60)은 다문화 음악교육이 지니는 의의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첫째, 다문화 음악교육은 우리에게 다른 민족의 음악, 문화, 사회, 정치, 종교 등을 이해하도록 하여, 다른 문화를 수용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자신의 문화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 민족적, 국가적, 세계적 정체성을 가지게 하며, 다른 나라 사람과 다른 민족에 대한 정체성도 이해하게 된다.

셋째, 각 나라의 음악이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차이성을 인식하게 해준다. 각 종족음악은 사용하는 언어, 악기, 음계, 형식 등에서 각각 독특한 구조와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각 민족의 음악 문화는 서로 다른 체계 속으로 동화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다.

넷째, 자기 고유의 음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여러 종족음악을 경험함으로써 그 속에서 자기 민족 고유 음악의 특성을 보다 명확하게 인식하게 해 준다. 다른 민족과 다른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자기 민족과 자기 문화를 더욱 잘 이해하게 된다.

다섯째, 음악적 창의성 발달에 도움을 준다. 다양한 외국 음악문화를 경험하게 하는 것은 인간에게 음악적으로 창의적인 사고와 활동을 할 수 있는 자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여섯째, 음악의 개념을 확대시켜준다. 다른 나라의 여러 음악을 경험하면서 모든 음악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 음높이, 리듬, 형식, 음색 등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봄으로써 음악의 개념이 확대된다.

이는 다문화인에 대한 이해와 해석의 폭을 넓히기 위해 다문화인과의 정서적인 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음악교육의 내용이 다문화적으로 통합되어야 하는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처럼 다문화적 통합의 필요성과 의의를 인정할 때 음악교육과정의 통합과 변화는 정책적인 것으로서 여러 가지 논의와 절차가 요구된다. 다음은 다문화교육에 있어 뱅크스가 주장한 교육과정의 변화 절차이다.

뱅크스(Banks, 2008)는 타 인종 및 다문화적 내용이 기존의 교육과정으로 변화되고 통합되는 변혁적 교육과정과 다양한 관점을 네 단계 수준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즉 제1수준은 기여적 접근법(The Contributions Approach)으로, 영웅, 공휴일, 개별적인 문화적 요소에 초점을 두는 단계이다. 우리나라로 유입한 다문화인에게 우리 문화에 전해 내려오는 영웅이야기나 공휴일 등에 초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변화하는 단계이다. 제2수준은 부가적 접근법(The Additive Approach)으로, 교육과정의 구조는 변화시키지 않은 채 내용이나 개념, 주제 관점을 교육과정에 포함한다.

제3수준은 변혁적 접근법(The Transformation Approach)으로, 학생들의 다양한 민족 집단 및 문화집단의 관점에서 개념, 이수, 사건, 주제를 바라볼 수 있도록 교육과정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단계로서, 보다 확장된 변화를 의미한다. 제4수준은 사회적 행동접근법(The Social Action Approach)으로, 학생들이 중요한 사회문제와 관련하여 결정을 내리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취하는 단계이다(Banks, 2008: 31).뱅크스에 의하면, 교육과정의 변화는 사회적 행동으로 접근해야만 효과적인 변화가 성립되고 그 결과로 학습 내용이 통합되는 것이다.뱅크스가 주장하는 교육과정의 다문화적 변화 단계는 음악교육의 다문화적 통합 관점에 실제적인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요약하면, 다문화 음악교육의 통합은 우리 문화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서로 존중하면서 세계를 향한 열린 마음을 가지게 하며, 각 민족의 음악 문화는 서로 다른 체계 속으로 동화시키는 힘을 지니게 도우는 등의 의의를 지닌다. 즉 다문화 음악을 경험하면서 다문화감수성을 증진시키게 되고, 이어서 다문화인에 대한 이해와 화합과 관심을 보이게 된다.

(2) 학습사회에서의 다문화 음악통합교육

앞의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의 의의에 대한 논의에 이어서, 다문화시대를 살아가며 학습사회를 대비하는 우리에게 다문화 음악의 통합이 중요한 전제임을 인정하게 된다. 성인을 주요 대상으로 시행하는 평생교육정책에서, 여러 나라의 다문화음악에 대하여 경험하도록 하고 다른 세계와의 접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다문화적 통합을 위한 중요한 교육 방안이 된다.

다문화교육은 배움을 통해 다양한 문화에 대한 관용적 태도를 함양하고 올바르게 발전적인 수용을 장려하는 동시에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비교문화적 성찰을 가능하게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인간을 둘러싼 가족, 사회, 제도, 정치, 종교, 예술 등 모든 것이 문화현상이며 배움의 현상이므로 여러 문화를 배우고 익히는 것은 다양한 문화 환경을 생성하고 융합하고 실행하여 문화창조와 변혁을 위한 자기재조의 밑거름이 된다(최향석, 2010:

24).

음악교육의 다문화적 통합은 음악문화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의 의미’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문화적 표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수용할 수 있도록 도우는 것에 의의를 둔다. 외국의 노동 인구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필연적으로 다문화인의 증가를 가져 왔다. 음악교육이 다문화적인 통합으로 변화할 때, 즉 세계 여러 나라의 음악을 음악교육과정에 포함시킬 때, 학습자는 세계를 이해하는 흥미 있는 경험을 하게 되며, 그 결과로 음악교육 실재에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난다. 다음은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이 실시될 때 나타날 수 있는 교육의 결과에 대한 내용이다.

첫째, 각 나라마다 놀이할 때 부르는 노래가 있다. 이 놀이노래를 함께 부르며 놀이함으로써 다른 나라에도 놀이를 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있음과 전래동요를 알게 되며, 나라별 놀이노래의 유사점과 공통점을 알게 된다.

둘째, 각 나라마다 특별한 날에 부르는 특별한 노래가 있음을 알게 되며, 특별한 날 부르는 노래를 감상하고 그 노래가 지닌 의의와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하여 이해하며 아울러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역사를 알게 된다.

셋째, 다른 나라의 음악가와 악기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세계 여러 나라에 음악가와 악기가 있음을 알게 되고, 음악가의 대표곡을 감상하고 비교하며 그 음악이 지닌 민족 정서와 음악을 연주하는 데 사용되는 다양한 민속 악기가 있음을 알게 된다.

넷째, 음악과 함께 다른 나라의 춤과 의상에 대하여 배움으로써 각 나라마다 고유한 춤과 의상이 있음을 알게 되며, 다양한 문화권의 춤의 표현방법을 이해하고 표현하고 다양한 나라의 춤을 추며 함께 즐거움을 느끼게 될 것이다.

다섯째, 이러한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을 통하여 다문화 감수성을 계발하여 세계를 이해하고 다양성을 수용하는 개방된 인간성을 가지게 된다. 음악감상을 통한 다문화 음악교육이 인간의 정서지능 즉, 정서지능의 하위영역인

정서인식과 표현, 정서에 의한 사고촉진, 정서지식의 활용, 정서의 반영적 조절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방은영, 2012: 199).

다시 정리하면, 다문화적으로 통합된 음악교육은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와 함께,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 민요를 중심으로 종교음악, 예술음악, 록, 재즈 등 우리 시대의 대중음악을 포함하여 모두를 통합하여 교육하는 것이다.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들, 즉 다문화인과 연관된 사회폭력, 집단 따돌림, 주폭(酒暴)의 증가, 자살충동, 교권침해, 국민 서로 간의 비인간적 갈등 등의 여러 가지 사회병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앞에서 논의된 다양한 방법으로 시행하는 다문화음악교육에 의존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다시 말하면 평생교육제도에서 다문화인의 사회적인 적응을 가능하게 하는 다문화 음악교육적인 방법은, 성인이 쉽게 화합할 수 있는 음악활동을 통하여 서로 공감하여 마음의 벽을 헐고 모두를 통합할 수 있는 음악적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주외국인의 유입으로 인한 다문화인과 다문화자녀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은 강조되지만, 특히 문화예술교육에 별로 관심을 두지 않는 동남아시아 출신의 다문화인들에게 학습사회의 프로그램에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문화자녀의 사회부적응이나 비사회적인 행동을 치유하거나 예방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문화예술교육, 즉 다문화인에 대한 실제적인 다문화적 음악교육으로 볼 때, 음악교육정책은 다문화적인 내용이 통합되어 모두를 수용하는 폭넓은 인간형성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지속적이고 체계성 있는 다문화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의 바탕 위에서 실현되고 발전할 수 있다. 언어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여성결혼이민자와 우리 사회와의 통합이 가능하도록 평생교육 차원에서 교육적 노력과 정책이 필요하다.

다문화 음악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통합된 다문화음악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대적인 요구를 인식하게 된다. 음악은 신체표현, 활동

교수, 놀이활용 통합교육, 다른 과목과의 통합교육 등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이상적인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인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문화장벽을 해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자아정체감이 확립 되도록 도우는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의 문화와 가치 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주의 실현을 위한 노력은 평생학습사회 차원에서 시행해야 한다. 인식의 전환을 위한 다문화 음악교육, 여성결혼이민자의 적응을 위한 언어교육과 음악교육의 통합,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 등을 위한 노력은 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가 된다.

4. 결론

평생학습사회의 도래와 함께 다문화교육은 미래 한국사회의 교육시장을 주도하는 열쇠로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된다. 성인을 교육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은, 인간이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배움의 가치를 중시하고, 배움을 통하여 얻는 행복을 가치 있게 보는데서 시작하여 학습사회를 지향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평생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평생교육이념과 다문화교육적인 요소를 접목하여 음악교육의 다문화적 통합을 추구하며,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이 지닌 의의와 나아갈 방향에 대하여 모색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 예술작품과 예술적 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면서 상호간에 정서와 의사를 소통하는 우리 인간은 누구나 학습하는 존재로서, 출생과 함께 학습이 시작되어 생을 마칠 때까지 학습하는 호모 에루디티오(Homo Eruditio), 즉 학습동물(homo student)이다. 이 학습권을 가진 학습동물로서의 인간은 생애 중 긴 기간 동안 성인학생이 되어 모든 교육 활동에 참여할

권리가 있으며, 이 학습권을 충족시키는 평생교육 원리는 학습사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외국 노동 인구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로 꾸준히 증가 추세에 있는 다문화가정은 필연적으로 다문화인의 수를 증가시키고 있으며, 다문화인들 역시 배움의 본능이 있고 자기 삶에 대한 애착과 행복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음을 인식할 때 다문화교육은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된다. 왜냐하면 다문화 가정의 성인 역시 일생을 통하여 배움의 가치를 행복의 수단으로 삼는 '호모 에루디티오'로서의 개인이기 때문이며, 평생학습사회에서의 다문화교육은 '이미 시작된 미래'이므로 미래 우리 사회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자원이 되기 때문이다.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체계와 행동양식을 지닌 다원화된 사회의 구조 속에서 각 문화권에 속하는 사람들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이 된다.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은 음악문화에 대한 표현의 차이가 있으나 '공통의 의미'가 있음을 인식함으로써 우리와 다른 문화적 표현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다른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다시 말하면, 다문화가정의 성인들이 우리 사회에 시간적으로 빠르게 동화되도록 하는 최선의 방법은 평생교육 차원에서 적당한 음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에 적당한 인적 자원을 지원하며, 이를 시행하기 위한 교육 공간이나 교육 자원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음악은 인류의 공통 언어이다. 음악교육은 사회를 통합하고 인간 개개인의 차이를 통합하여 다양성을 인정하는 등의 감수성을 자극하는 유용한 방법이다. 또 음악은 수학, 과학, 생태교육, 미술 표현력 등의 모든 분야와 통합이 가능하며, 운동능력과 신체능력 및 정서지능과 사회성 발달과도 통합이 가능하다.

그러므로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은 자신의 민족문화에 대한 내용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를 탐색하여,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하여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며 다른 문화에 대하여 생각하거나 말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가운데서 다문화적 통합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사회폭력을 감소시키는 것, 사회적 도덕성을 신장시키는 것, 원만한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은 사회를 통합하는 데 다문

화 음악통합교육이 지니는 의의가 된다.

학문의 융합 혹은 통합의 시대로 나아가는 이 시점에서 지속적이고 체계성 있는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학교교육과 성인교육을 포함하는 평생교육의 바탕 위에서 실현될 수 있다. 음악교육은 인간성 회복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한 하나의 대안이며, 사회의 이질적인 면을 수평적·수직적으로 통합하는 교육적인 통로이다. 평생교육차원에서 음악교육은 역사적·문화적·사회적 맥락에서 통합된 다문화음악교육으로 변화되어야 할 시대적인 요구를 인식하게 된다. 음악은 신체표현이나 활동교수, 혹은 놀이를 활용하는 등의 다른 여러 활동과 통합될 수 있는 교과목이다. 또 학습사회를 대비하는 관점에서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은 다문화인의 소외감과 이질감을 유발하는 언어와 문화장벽을 해소하여, 그들로 하여금 한국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아정체감이 확립되도록 도우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론으로 연구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을 요약하면, 첫째, 우리 국민과 다문화인을 대상으로 하는 음악교육 내용에 다문화음악이 포함되는 교육과정의 변화가 평생교육체제에 도입되어야 한다. 우리 국민은 동아시아 국가 등 외국의 문화를 경험하고 서로 소통하는 장으로 삼아야 하고, 또 다문화인은 우리 문화를 경험하는 가운데서 우리 사회의 일원임을 새삼 인식하게 하는 목적을 지닌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교육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둘째,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은 우리 국민과 다문화인 모두가 우리나라 전통음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면서 존중하는 태도를 가짐과 함께, 다른 나라를 대표하는 전통적 민요를 중심으로 종교음악, 예술음악, 록, 재즈, 대중음악 등을 포함하여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통합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문화와 서양 문화 중심으로 구성된 교육정책은 동아시아 국가 등의 문화와 음악에 대하여 더욱 관심을 가지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하고, 아울러 이를 통합하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연구가 도입되어야 한다. 즉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집단의 문화와 가치 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다문화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은 평생학습사회 차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다문화인에 대한 인식의 전환을 위하여 다문화 음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음악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다문화인의 전통음악이 교육과정에 도입되어야 한다. 특히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응을 위하여 언어교육과 음악교육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주해 온 외국인 근로자에게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인적자원개발 차원에서의 다문화 음악교육이 학습사회를 통하여 실현되는 사회적 정책이 요구된다. 우리 국민이 다문화인과 함께 그들의 전통동요나 민요를 부르거나, 다문화인이 우리의 민요를 부르거나 우리 전통음악을 배우는 것은 다문화 감수성을 유발하는 좋은 방법이 된다. 평생교육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학습사회를 대비하는 다문화 음악통합교육은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하나의 중요한 정책이 될 것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와 실제적 적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2013.10.17 접수, 2013.11.23 수정, 2013.12.26 게재확정

참고문헌

- 권덕원, 2000, 다문화주의 음악교육론과 국악교육, 음악과 문화, 2, 49-75.
- 권덕원 외, 2008, 음악교육의 기초, 서울: 교육과학사.
- 권미경, 2008, 다문화주의 실현과 평생교육의 역할, 부산교육학연구, 21, 1-15.
- 권정숙, 2012,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의 평생학습 방향 탐색, 교육연구논총, 33(1), 49-72.
- 김경식 외, 201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신정.
- 김성혜, 2011, 다문화 음악교육에 대한 음악인류학적 단상, 음악이론연구, 16, 8-27.
- 김영순 외, 2010, 다문화교육과 인간관계, 서울: 교육과학사.
- 김정덕·모경환, 2011, 문화성향과 다문화감수성관계 연구 교육문화연구, 17(3), 193-226.
- 김향정, 2009, 사회적 변화에 따른 한국 다문화음악교육의 방향, 음악과 민족, 371-398.
- 김혜은, 2012, 다문화교육의 심리학적 이해, 서울: 학지사.
- 김희숙·장인한, 2009, 통합적 음악활동 중심의 다문화 음악과 교육과정 재구성, 교육학논총, 30(1), 1-29.
- 나향진 외, 2011, 평생교육론, 서울: 양서원.

- 남정걸 외, 2003, 평생교육행정, 한국교육행정학회, 서울: 도서출판 하우.
- 마승희, 2011, 통합유아음악교육에 관한 연구동향, 유아음악교육학논집, 15(5), 227-247.
- 모경환 외, 2009, 다문화교육 입문, 서울: 아카데미프레스.
- 민경훈, 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음악교육의 필요성과 역할, 예술교육연구, 7(1), 93-111.
- 방은영, 2012, 음악 감상활동을 통한 다문화 교육이 유아의 정서지능 향상에 미치는 효과, 음악교육연구, 41(3), 181-204.
- 송병순 외, 2000, 평생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원미사.
- 신순식 외, 2010,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서울: 공동체.
- 오영훈, 2009, 다문화교육으로서 상호문화교육, 교육문화연구, 15(2), 27-44.
- 오은순, 2011, 외국의 초등학교 저학년 음악과와 미술과 교육과정 분석, 통합교육과정연구, 1-24.
- 윤여각 외, 2009, 평생교육론,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출판부.
- 은은숙, 2013, 피아제의 '전근의 구조' 및 'INRC변형구조'에 근거한 초등통합교육모형 구성의 필요성, 철학논총, 71(1), 247-277.
- 이성미, 2012, 다문화정책론, 서울: 박영사.
- 장윤수, 김영필, 2012, 한국 다문화사회와 교육, 서울: 양서원.
- 전재영, 2011, 학교 다문화교육의 체계화 방안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길영, 2013, 예술적 표현의 가치와 인성교육 및 치료에의 적용, 교육철학, 49, 235-270.
- 차윤경 외, 2011, 예술로 배우는 다문화, 서울: (주)대교.
- 최항석, 2010, 평생교육으로서의 다문화주의, 시민인문학, 18, 9-32.
- 한국사회과학교육 연구회, 2011, 다문화교육의 이론과 실제, 경기: 미담.
- 한국성인교육학회, 2012, 성인교육의 현재와 미래, 서울: 학지사.
- 한상길, 2011, 평생교육론, 경기: 공동체.
- 한승희, 2010, 평생학습사회연구, 서울: 교육과학사.
- 한준상, 2012, 호모 에루디티오, 서울: 학지사.
- 함희주, 2003, 초등학교 교육에서 다문화적 음악교육 적용가능성 탐색, 음악교육연구, 2, 1-27.
- 홍승연, 2011, 음악교육을 통한 다문화가정 아동의 정체성세우기 방안 연구, 예술교육연구, 9(1), 57-74.

Anderson, W. M. & Campbell. P. S. Eds., 1996, Multicultural perspectives in Music education (2nd ed.) Music educators.

Banks, A. James, 2006,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 (Foundations, & Curriculum, and Teaching), & Pearson Education, Inc. Boston.

- Banks, A. James, 2008, & An Introduction to & Multicultural Education, & Boston: Allyn and Bacon. National Conference.
- Banks, A. James, & Banks, C. A. (ed), 2004, Handbook of & Research on Multicultural & Education, Jossey-Bass, San Francisco.
- Banks, A. James, & McGee Banks, A. Cherry, 2007, Multicultural & education & issues and perspectives, (ed.), & printed in the USA. Bennett, C. L., 1995, Comprehensive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MA: Allyn & Bacon.
- Elliott D. J., 1990, "Music as Culture: Toward a Multicultural Concept of Art Education", Music educators Journal, 91(4).
- Elliott D. J., 1995, Music matters: A new philosophy of music educ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 Gollnick, D. M. & Chinn, P. C., 1990. Multicultural Education in a Pluralistic Society and Education. Columbus: Charles E. Merrill Publishing Company.
- Gorski, C. Paul, 2005, Multicultural Education and the internet, (Intersection and Integrations), McGraw-Hill Co. Inc. New York.
- Mark, Michael L., 1978, Contemporary music education, New York: Schirmer Books.
- Reimer, B., 1993, "Music education in our multicultural culture", Music educators Journal, 79 (2), 21-26.
- Salili, F. & Hoosain, R., 2001, Multicultural education: history, issues, and practice, In F. Silili & Hoosain(Eds), Multicultural education issues, policies and practice, IAP.

The Multicultural Music integrated Education to Prerare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Kil-Young Jung*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integration move of the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perspective to prepare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The effort for the Multiculturalism realization is possible at the lifelong learning society level, the communities that admit and live together in the cultural and values of all groups in. At the time of move on fusion or integration the study, to the era of sustainable and continued multicultural music integrated education begins in the home and can be realized on the basis of lifelong education, including the school education and adult education. Some efforts and policies are needed to integrate music education in the terms of lifelong education, for other immigrant women who has linguistic and cultural different back grounds from our society. First, we are required the transition of awareness in the multicultural in home, school, and community. For the integrated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we must have interest and understanding, with an attitude of respect to the our traditional music. And which represents the traditional folk of other countries, focusing on religious music, art music, rock, jazz and popular music of our time, including the will to integrate all. With the advent of lifelong learning, to prepare the learning society, the integrated multicultural music education will be one of the important policy for the our integrate society, and I think it is necessary for the specific research and application.

Keywords learning society, multicultural education, music integrated education

* Daegu University Lecturer, Education, kyoung0217@hanmail.net